

농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중앙대학교 진현정 교수

- 농식품산업의 국가경제적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후방 산업 간 연계 분석이 필요한데, 특히 농식품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농림수산업, 식품료품제조업, 외식산업의 상호 연계구조와 각 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이를 위해 2025년 8월 기준 발표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식품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및 연계구조 분석을 수행함
-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민 경제 내 농식품산업의 현황, 2) 2021-2022 농식품산업 연계구조 분석, 3) 2021-2022 농식품산업 투입산출구조 분석, 4) 국내산 농림수산물 공급 흐름

국민 경제 내 농식품산업 현황

농식품산업의 정의

- 본 연구는 농식품산업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로 구성된 농림수산업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하는 식품료품제조업 및 이러한 농수산물과 음식료품 제조업이 유통되는 외식업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산업연관표 식품산업 분류

- 농식품산업 범위는 한국은행 2020년 산업연관표 실측표 기준 농림수산업, 식품료품제조업, 외식업에 속한 55개 기본부문 중 비식품품을 제외한 44개 기본부문(농림수산업 16부문, 식품료품제조업 24부문, 외식업 4부문)을 포함

Ⅰ <표 1> 분석 대상 농식품산업 분류

농림수산업		식품료품제조업		외식업
벼	기타 축산	도축육	떡, 빵 및 과자류	일반음식점
맥류 및 잡곡	식용 임산물	가금육	면류	주점
콩류	수산어획	육가공품	조미료/첨가용 식품	기타음식점
감자류	수산양식	낙농품	유지	비알콜 음료점
채소		수산물 가공품	과실/채소가공품	
과실		수산동물 저장품	커피 및 차류	
약용작물		정곡	인삼/건강보조식품	
기타 식용작물		제분	기타 식료품	
낙농		원당	주정	
축우		정제당	소주	
양돈		전분 및 당류	맥주	
가금			기타 주류	
			비알콜음료/얼음	

식품산업 현황

- 2021년 농림수산업 총산출액은 약 69.5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97%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약 67.8조 원으로 2.48% 감소함. 식품료품제조업 총산출액은 2021년 약 134.1조 원으로 15.04% 증가하였고, 2022년 약 151.7조 원으로 13.13% 추가적으로 증가함. 외식업 총산출액은 2021년 약 161.5조 원으로 7.35% 증가, 2022년 약 189.9조 원으로 17.58% 증가함
- 최종소비지출의 경우 농림수산물은 2021년 19.6조 원 → 2022년 19.57조 원, 식품료품제조업은 2021년 63.9조 원 → 2022년 68.2조 원, 외식업은 2021년 104.3조 원 → 2022년 120.8조 원으로 변화됨

Ⅱ <표 2> 식품산업의 규모 변화 추이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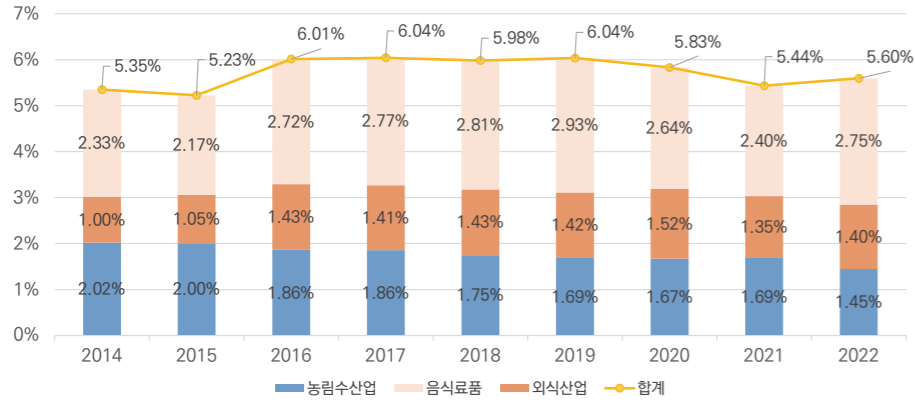
연도	분류	총공급	총산출	최종소비지출	투자 및 재고	수입	수출
2010	농림수산업	55,865	48,832	14,251	1,400	7,033	574
	식품료품제조업	90,536	74,489	39,406	2,599	15,970	5,423
	외식업	80,350	75,844	47,950	0	4,506	2,746
2011	농림수산업	59,511	50,752	15,222	1,250	8,759	581
	식품료품제조업	101,074	80,519	43,749	3,210	20,479	6,659
	외식업	86,216	81,243	50,796	0	4,973	3,137
2012	농림수산업	61,482	52,276	15,852	682	9,206	674
	식품료품제조업	103,630	83,567	45,131	287	19,989	7,198
	외식업	90,313	85,587	53,221	0	4,727	3,256
2013	농림수산업	61,344	52,329	16,329	718	9,015	626
	식품료품제조업	108,540	88,327	49,093	-420	20,077	7,098
	외식업	93,754	89,086	53,701	0	4,668	3,346

연도	분류	총공급	총산출	최종소비지출	투자 및 재고	수입	수출
2014	농림수산업	61,360	52,695	15,853	418	8,665	620
	식품료품제조업	115,083	93,800	52,817	-248	21,183	7,220
	외식업	97,914	93,100	54,742	0	4,813	3,768
2015	농림수산물	65,366	56,692	16,317	868	8,674	575
	식품료품제조업	118,040	96,018	43,195	81	22,022	6,227
	외식업	119,920	114,640	69,035	0	5,280	2,793
2016	농림수산물	64,691	55,776	16,702	1,275	8,915	665
	식품료품제조업	128,905	103,258	49,294	-21	25,647	6,680
	외식업	139,554	132,011	80,156	0	7,543	3,592
2017	농림수산물	65,674	56,915	17,067	509	8,759	689
	식품료품제조업	135,994	108,687	52,188	67	27,307	6,739
	외식업	150,778	142,366	85,708	0	8,412	3,159
2018	농림수산물	67,299	58,171	17,658	-586	9,128	727
	식품료품제조업	142,365	112,751	54,486	298	29,614	7,108
	외식업	160,954	151,469	91,217	0	9,485	4,921
2019	농림수산물	68,096	58,643	17,534	-355	9,453	936
	식품료품제조업	148,478	116,743	56,743	2,113	31,735	7,429
	외식업	165,946	158,266	93,000	0	7,680	5,253
2020	농림수산물	69,042	59,458	17,526	-242	9,585	955
	식품료품제조업	148,863	116,563	57,109	-12	32,301	7,412
	외식업	154,311	150,439	97,112	0	3,872	2,666
2021	농림수산물	80,611	69,548	19,598	1,912	11,064	1,572
	식품료품제조업	168,560	134,094	63,884	1,313	34,466	9,520
	외식업	165,775	161,489	104,298	0	4,286	2,754
2022	농림수산물	82,990	67,820	19,570	1,162	15,170	1,119
	식품료품제조업	195,099	151,698	68,179	818	43,401	11,018
	외식업	195,560	189,883	120,815	0	5,677	3,517

-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2010년 이후 국내 식품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외식업의 성장이 두드러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소비가 2021-2022년 회복되면서 외식업을 중심으로 식품산업 전체 외형이 크게 확대됨. 총산출액 기준으로 2010년 대비 2022년 식품산업은 84.9% 성장했으며, 외식업은 150.4% 증가해 약 2.5배 성장했고, 소비지출 역시 152.0% 증가해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
- 연평균 성장률(CAGR)도 외식업이 7.95%로 가장 높아,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소득 증가, 1인 가구 확대, 식생활 변화 등 사회·문화적 변화와 맞물려 외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판단됨
- 2022년 기준 명목 GDP에서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60%로 회복세를 보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외식업이 2.75%로 가장 높고, 농림수산업은 1.45%, 식품료품제조업은 1.40%로 나타남

◁그림 1> 국내 명목 GDP 기준 식품산업의 비중

단위: %



- 전반적으로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음식료품제조업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외식업은 팬데믹 시기 위축되었으나 이후 빠르게 반등하며 식품산업 내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식품산업의 중심이 원재료 중심의 1차 산업에서 가공 및 서비스 중심의 2차·3차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외식업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았음을 제시함

2021-2022 농식품산업 연계구조 분석

생산유발효과

-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 모두 2021년의 생산유발계수가 2020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도 2021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3)

◁표 3> 대분류 기준 식품산업 생산유발계수

구분	2020		2021		2022	
	전 산업	농림수산업	전 산업	농림수산업	전 산업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2.242	0.292	2.320	0.313	2.330	0.281
외식업	2.250	0.151	2.276	0.170	2.295	0.162
농림수산업	1.814	1.200	1.864	1.063	1.909	1.055

- 2021년 기준 음식료품제조업의 전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320, 농림수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0.313으로 나타남. 이는 음식료품제조업 부문에서 최종 수요가 10억 원 증가할 경우, 국내 전체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약 23.2억 원, 농림수산업에서는 3.1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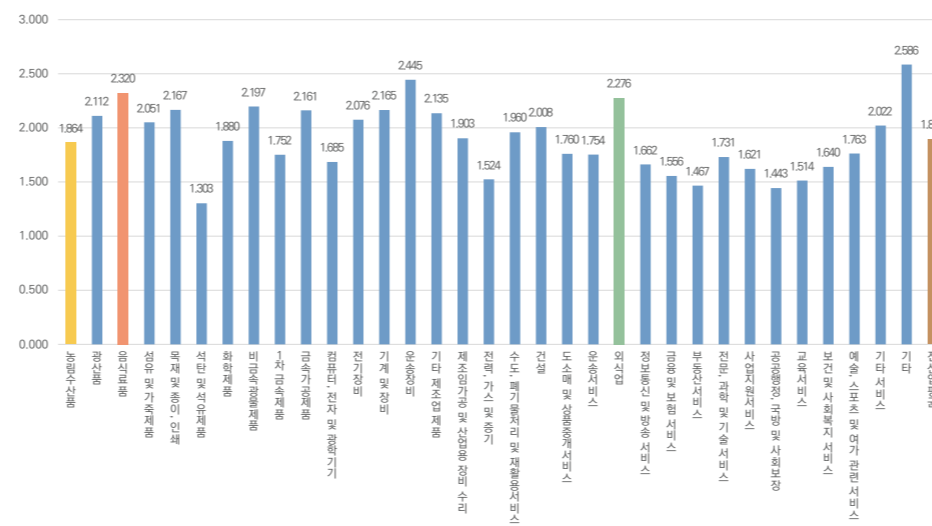
- 전년도인 2020년과 비교하면 전 산업에 대한 계수는 2.242에서 2.320으로,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0.292에서 0.313으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음식료품제조업의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줌. 다만, 2022년에는 전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가 2.330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업에 대한 계수는 0.281로 감소해 음식료품제조업이 농림수산업과의 연계성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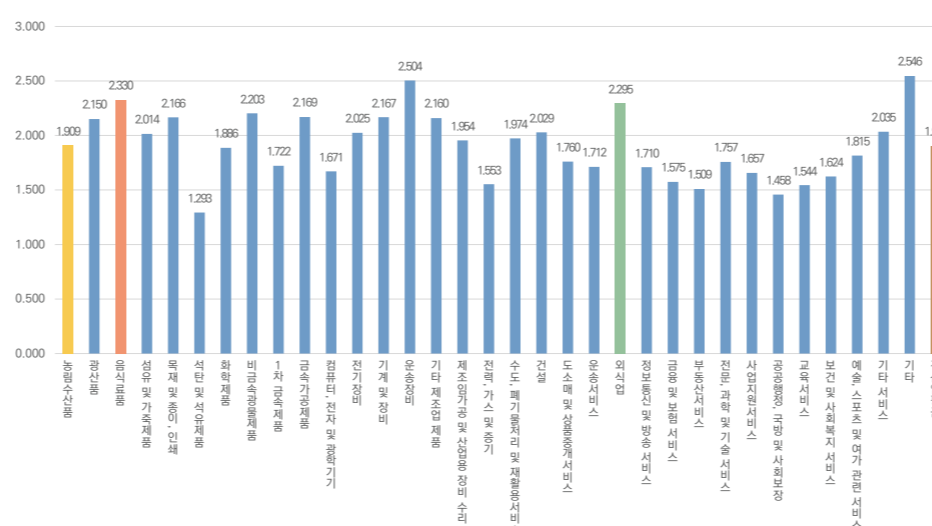
- 외식업의 경우, 2021년 기준 전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276,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0.170으로 나타남. 이 수치는 전년도인 2020년과 비교해 각각 2.250에서 2.276, 0.151에서 0.170으로 상승한 수치로, 외식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확대되었음을 보여줌

- 2022년에는 전 산업에 대한 계수가 2.295로 소폭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업에 대한 계수는 0.162로 다시 감소해 외식업과 농림수산업 간 연계효과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그림 2a> 대분류 기준 산업별 생산유발계수(2021)



◁그림 2b> 대분류 기준 산업별 생산유발계수(2022)



- 한편, 농림수산업 자체의 전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2021년 기준 1.864로, 2020년의 1.814보다 상승한 수치이며, 2022년에는 1.909로 또 한 번 상승해 농림수산업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보면, 음식료품제조업과 외식업은 국내 산업 전체에 대한 생산 유발효과가 크고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농림수산업과의 연계성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흐름을 보임

◁표 4> 기본부문 분류 기준 음식료품제조업 및 외식업 생산유발계수

산업 분류	2021				2022			
	전체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	전체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
도축육	3.028	0.917	1.014	0.017	3.090	0.766	1.022	0.035
가금육	2.741	0.586	1.010	0.018	2.830	0.591	1.012	0.020
육가공품	2.199	0.152	1.246	0.011	2.277	0.154	1.279	0.015
낙농품	2.485	0.321	1.147	0.015	2.466	0.286	1.163	0.017
수산물 가공품	2.249	0.233	1.156	0.015	2.301	0.235	1.165	0.017
수산동물 저장품	2.625	0.341	1.207	0.020	2.659	0.338	1.203	0.022
정곡	2.475	0.876	1.007	0.012	2.523	0.802	1.007	0.012
제분	1.618	0.049	1.029	0.009	1.572	0.049	1.026	0.009
원당	1.000	0.000	1.000	0.000	1.000	0.000	1.000	0.000
정제당	1.746	0.005	1.029	0.012	1.587	0.004	1.021	0.010
전분 및 당류	1.791	0.019	1.124	0.012	1.902	0.020	1.159	0.014
떡, 빵 및 과자류	2.181	0.109	1.274	0.012	2.184	0.100	1.296	0.013
면류	2.321	0.039	1.385	0.013	2.297	0.035	1.405	0.014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	2.147	0.110	1.231	0.013	2.159	0.101	1.249	0.015
유지	1.840	0.131	1.091	0.010	1.567	0.073	1.051	0.008
과실 및 채소 가공품	2.107	0.270	1.094	0.011	2.098	0.251	1.103	0.011
커피 및 차류	1.964	0.063	1.103	0.013	1.953	0.066	1.105	0.014
인삼 및 건강보조식품	2.189	0.115	1.127	0.013	2.228	0.108	1.148	0.015
기타 식료품	2.221	0.162	1.312	0.011	2.204	0.157	1.314	0.012
주정	2.129	0.136	1.362	0.015	2.071	0.119	1.311	0.016
소주	1.683	0.022	1.188	0.011	1.638	0.018	1.161	0.011
맥주	1.702	0.014	1.021	0.016	1.707	0.019	1.023	0.018
기타 주류	2.021	0.039	1.084	0.023	1.991	0.037	1.092	0.025
비알콜음료 및 얼음	2.312	0.058	1.213	0.015	2.338	0.057	1.232	0.017
일반음식점	2.240	0.195	0.257	1.016	2.269	0.186	0.277	1.018
기타음식점	2.400	0.143	0.367	1.015	2.408	0.138	0.384	1.016
주점	2.318	0.132	0.389	1.015	2.268	0.119	0.393	1.016
비알콜음료점	2.219	0.091	0.284	1.015	2.241	0.091	0.306	1.017

- 기본부문 기준 생산유발계수 추정치를 보면(표 4),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전체 산업에 파급되는 생산유발계수는 2021년 기준 음식료제조업 중 도축육(3.028), 가금육(2.741), 수산동물 저장품(2.62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음식료품제조업 중 농림수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부문은 도축육(0.917), 정곡(0.876), 가금육(0.586)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산업들이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높고 원물 투입 비중이 커 가공보다는 1차 생산물에 의존도가 크기 때문으로 해석됨. 반면, 음식료품제조업 내에서 자체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분야는 면류(1.385), 주정(1.362), 기타 식료품(1.312)로, 이들 산업은 동일 업종 간 중간재 사용이 활발해 내부 연계성이 강한 특징을 가짐

- 외식업과의 연계 측면에서는 외식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식품제조 분야는 기타주류(0.023), 수산동물저장품(0.020), 가금육(0.018), 도축육(0.017) 순으로 나타남. 2022년에도 도축육(3.090), 가금육(2.830), 수산동물저장품(2.659)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컸으며, 농림수산업에 대해서는 정곡(0.802), 도축육(0.766), 가금육(0.591)이 높은 유발계수를 유지함

- 자체 산업에 대한 계수는 전년과 유사하게 면류, 기타 식료품, 주정 순으로 높았고, 외식업에 대한 유발계수는 도축육(0.035), 기타주류(0.025) 등이 상위권을 유지함

- 외식업 내부적으로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기타음식점(2.400), 주점(2.318), 일반음식점(2.240), 비알콜음료점(2.219) 순으로 나타남

- 농림수산업에 가장 큰 생산유발효과를 주는 외식업 부문은 일반음식점(0.176)으로, 이는 다양한 1차 농림수산물을 사용하는 특성 때문으로 해석됨. 한편, 음식료품제조업에 대한 유발계수가 가장 큰 부문은 주점(0.389)으로, 주점에서 주로 소비되는 주류 및 안주가 가공식품 중심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외식업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이 1.016으로 가장 높았으나, 네 개 부문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생산유발계수의 변화는 산업 간 연계 구조, 국내산 사용 비중, 가격 변동 등 다양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산업 간 중간재 거래 구조의 변화, 수입 대체율의 상승 또는 하락, 상대 가격의 변화 등은 생산유발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감응도계수나 영향력계수와 같은 다른 연계 지표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함. 다만, 특정 연도에 어떤 요인이 주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산업연관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심층적인 자료와 분석이 필요함

영향력과 감응도

- 2020년 기준 영향력계수를 보면(표 5), 음식료품제조업과 외식업이 1보다 크게 나타나 이들 산업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농림수산업은 1보다 작게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2021년과 2022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됨

- 영향력계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해당 산업의 수요 증가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가 평균보다 크다는 의미로,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일수록 영향력계수도 높은 경향을 보임

- 감응도계수는 음식료품제조업이 2020년 0.762에서 2021년 0.622로 감소한 후 2022년에도 0.62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외식업은 3년간 0.698, 0.675, 0.689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농림수산업은 2020년 0.716에서 2021년 0.786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에는 0.746으로 소폭 감소함

- 세 산업 모두 감응도계수가 1보다 낮은 것은 이들이 다른 산업으로부터의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받기보다는, 최종소비자 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종단점 산업'의 특성을 갖기 때문으로 해석됨

▶ <표 5> 대분류 기준 식품산업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구분	2020		2021		2022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음식료품제조업	1.118	0.762	1.154	0.622	1.151	0.624
외식업	1.123	0.698	1.132	0.675	1.133	0.689
농림수산업	0.905	0.716	0.927	0.786	0.943	0.746

- 기본부문 기준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의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보면(표 6), 2021년에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영향력계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도축육(1.506), 가금육(1.363), 수산동물 저장품(1.306), 정곡(1.231) 순이며, 이는 2022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됨. 반면, 원당(0.496)은 수입 원재료 의존도가 높고 국내 중간재 투입이 적어 낮은 수치를 기록함

▶ <표 6> 기본부문 분류 기준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계수

산업 분류	2021		2022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음식료품 제조업	도축육	1.506	0.711	1.526	0.735
	가금육	1.363	0.564	1.398	0.565
	육가공품	1.094	0.554	1.125	0.561
	낙농품	1.236	0.615	1.218	0.619
	수산물 가공품	1.119	0.619	1.137	0.617
	수산동물 저장품	1.306	0.618	1.313	0.597
	정곡	1.231	0.678	1.246	0.668
	제분	0.805	0.639	0.776	0.654
	원당	0.497	0.497	0.494	0.494
	정제당	0.869	0.572	0.784	0.565
	전분 및 당류	0.891	0.660	0.939	0.675
	떡, 빵 및 과자류	1.085	0.546	1.079	0.546
	면류	1.155	0.515	1.134	0.516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	1.068	0.789	1.066	0.791
	유지	0.915	0.591	0.774	0.598
	과실 및 채소 가공품	1.048	0.669	1.036	0.670
	커피 및 차류	0.977	0.535	0.964	0.535
인삼 및 건강보조식품	1.089	0.571	1.101	0.579	

산업 분류	2021		2022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감응도계수	
음식료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1.105	0.595	1.089	0.593
	주정	1.059	0.654	1.023	0.613
	소주	0.837	0.544	0.809	0.542
	맥주	0.846	0.572	0.843	0.569
	기타 주류	1.005	0.523	0.984	0.523
	비알콜음료 및 얼음	1.150	0.572	1.155	0.569
외식업	일반음식점	1.115	0.766	1.121	0.790
	기타음식점	1.194	0.520	1.189	0.518
	주점	1.153	0.520	1.120	0.523
	비알콜음료점	1.104	0.507	1.107	0.502

- 외식업 부문에서는 2021년 영향력계수가 기타음식점(1.194), 주점(1.153), 일반음식점(1.115), 비알콜음료점(1.104) 순이었으며, 2022년에는 일반음식점이 주점을 앞서며 기타음식점(1.189), 일반음식점(1.121), 주점(1.120), 비알콜음료점(1.107) 순으로 나타남. 외식업은 모든 부문에서 영향력계수가 1을 넘겨, 외식업이 식재료, 유통, 서비스, 설비 등 다양한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구조임을 보여줌

- 감응도계수, 즉 전방연쇄효과가 가장 높은 음식료품제조업 부문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 도축육, 정곡 순으로 나타남. 외식업 부문에서는 2021년 일반음식점이 0.766으로 가장 높았고, 주점과 기타음식점이 같은 수치(0.520)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일반음식점(0.790), 주점(0.523), 기타음식점(0.518), 비알콜음료점(0.502) 순으로 소폭 변화가 있었음

부가가치유발계수

- 2021년 기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음식료품제조업이 전 산업 0.740, 농림수산업 0.132였으며, 2022년에는 각각 0.694, 0.106으로 감소함. 외식업은 2021년 전 산업 0.797, 농림수산업 0.079를 기록하였으며, 2022년에는 0.773, 0.068로 줄어듦. 농림수산업의 경우 2021년 전 산업 0.864, 농림수산업 0.517에서 2022년에는 각각 0.826, 0.481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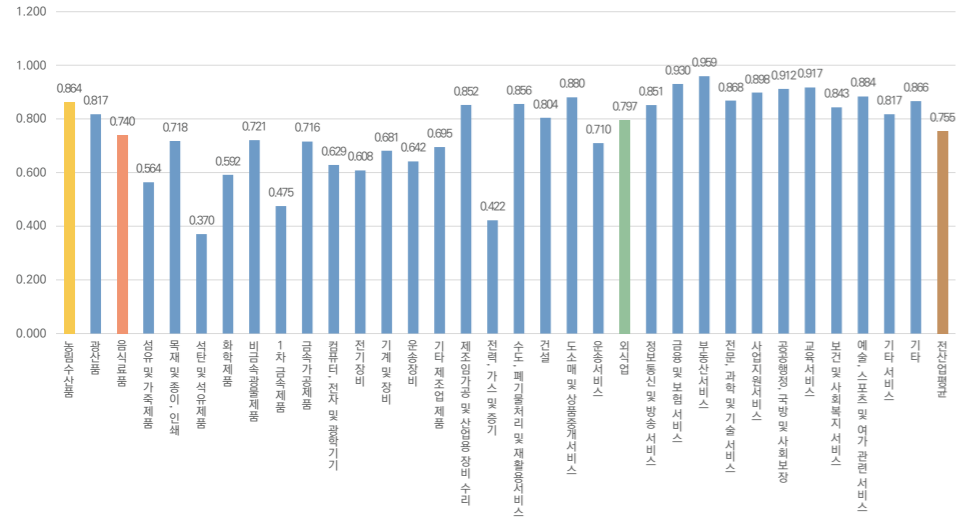
▶ <표 7> 대분류 기준 식품산업 부가가치유발계수

구분	2020		2021		2022	
	전 산업	농림수산업	전 산업	농림수산업	전 산업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0.759	0.146	0.740	0.132	0.694	0.106
외식업	0.816	0.075	0.797	0.079	0.773	0.068
농림수산업	0.867	0.542	0.864	0.517	0.826	0.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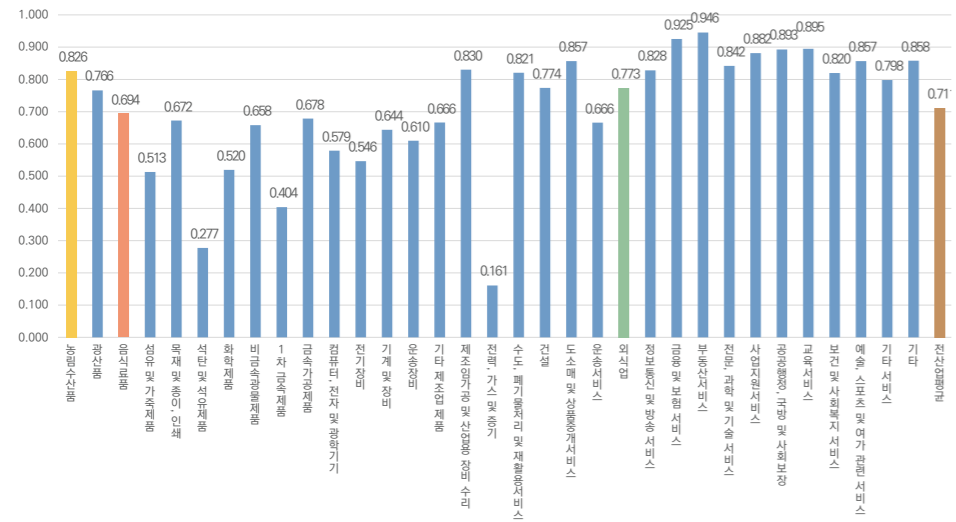
- 전체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 산업 모두 부가가치유발계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식품산업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다소 약화

되고 있음을 나타냄. 주요 원인으로는 수입 원자재 비중 증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포장재 및 가공재 수입 확대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은 늘어도 국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냄. 또한 물가 상승으로 실질 부가가치가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표 7, 그림 3)

▶ <그림 3a> 대분류 기준 산업별 부가가치계수(2021)



▶ <그림 3b> 대분류 기준 산업별 부가가치계수(2022)



- 기본부문 기준 부가가치유발계수 추정치를 보면(표 8), 2021년 음식료품제조업 중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은 부문은 정곡(0.887), 맥주(0.862), 도축육(0.840), 소주(0.834), 가금육(0.824), 기타주류(0.799) 순이며, 2022년에도 유사한 산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순서에 일부 변동이 있었음. 주류 및 육류 품목은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높고 제조 공정에서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것으로 해석됨

▶ <표 8> 기본부문 분류 기준 음식료품제조업 및 외식업 부가가치유발계수

산업 분류	2021				2022			
	전체	농림수산업	음식료제조업	외식업	전체	농림수산업	음식료제조업	외식업
도축육	0.840	0.280	0.082	0.005	0.782	0.169	0.083	0.011
가금육	0.824	0.164	0.160	0.005	0.800	0.144	0.155	0.006
육가공품	0.659	0.048	0.261	0.003	0.635	0.037	0.254	0.005
낙농품	0.743	0.119	0.180	0.005	0.680	0.096	0.169	0.005
수산물 가공품	0.724	0.082	0.266	0.004	0.702	0.074	0.261	0.005
수산동물 저장품	0.716	0.131	0.116	0.006	0.681	0.112	0.113	0.007
정곡	0.887	0.546	0.082	0.004	0.840	0.489	0.060	0.004
제분	0.458	0.029	0.193	0.003	0.412	0.027	0.182	0.003
원당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정제당	0.487	0.002	0.174	0.004	0.382	0.002	0.150	0.003
전분 및 당류	0.512	0.012	0.217	0.004	0.462	0.012	0.156	0.005
떡, 빵 및 과자류	0.713	0.054	0.311	0.004	0.665	0.046	0.297	0.004
면류	0.634	0.021	0.222	0.004	0.582	0.018	0.215	0.004
조미료 및 첨가용식품	0.697	0.067	0.278	0.004	0.656	0.059	0.267	0.005
유지	0.458	0.068	0.120	0.003	0.326	0.036	0.110	0.002
과실 및 채소 가공품	0.774	0.181	0.269	0.003	0.736	0.169	0.263	0.004
커피 및 차류	0.600	0.039	0.213	0.004	0.557	0.040	0.198	0.004
인삼 및 건강보조식품	0.834	0.074	0.346	0.004	0.799	0.070	0.332	0.005
기타 식료품	0.750	0.090	0.333	0.003	0.712	0.083	0.331	0.004
주정	0.613	0.085	0.253	0.005	0.553	0.072	0.221	0.005
소주	0.834	0.013	0.614	0.003	0.811	0.011	0.614	0.004
맥주	0.862	0.008	0.564	0.005	0.847	0.010	0.567	0.006
기타 주류	0.799	0.025	0.384	0.007	0.756	0.023	0.383	0.008
비알콜음료 및 얼음	0.725	0.038	0.233	0.005	0.682	0.037	0.218	0.005
외식업	0.793	0.090	0.046	0.319	0.771	0.076	0.046	0.326
일반음식점	0.793	0.090	0.046	0.319	0.771	0.076	0.046	0.326
기타음식점	0.807	0.060	0.076	0.286	0.772	0.052	0.075	0.289
주점	0.757	0.077	0.140	0.197	0.762	0.067	0.140	0.251
비알콜음료점	0.829	0.054	0.062	0.349	0.797	0.054	0.063	0.341

- 농림수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은 제조업 부문은 정곡(0.546), 도축육(0.280), 가금육(0.164)으로 2021년과 2022년 모두 동일한 순위를 보였고, 자체 산업에 대한 계수는 소주, 맥주, 기타주류 순으로 주류 산업이 높게 나타남. 음식료품제조업에서 외식업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대부분 0.01 이하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외식업 부문에서는 2021년과 2022년 모두 비알콜음료점(0.829), 기타음식점(0.807), 일반음식점(0.793), 주점(0.757) 순으로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았으며, 주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2022년에 소폭 감소함. 농림수산업에 가장 큰 부가가치 효과를 주는 외식업은 일반음식점(0.090), 음식료품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외식업은 주점(0.140)으로, 두 해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임

취업유발계수 및 고용유발계수

-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 농림수산업의 2021년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를 보면(표 9), 2021년 기준 음식료품제조업의 최종수요 10억 원 증가는 전체 산업에서 10.872명의 취업, 5.663명의 고용을 유발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로 2022년에도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감소는 자동화, 공정 효율화, 대기업 중심 생산 확대, 외주 증가 등으로 노동집약 구조에서 자본·기술집약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 <표 9> 대분류 기준 식품산업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구분	2020		2021		2022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음식료품제조업	13.274	6.087	10.872	5.663	10.477	5.325
외식업	18.974	9.814	17.098	8.829	15.537	8.032
농림수산업	25.803	4.627	22.513	4.163	23.839	4.117

- 외식업의 경우 10억 원당 17.098명의 취업, 8.829명의 고용이 유발되었으나, 이 역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고, 2018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인건비 상승과 키오스크 등 무인화 설비 확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됨
- 농림수산업은 같은 금액의 최종수요 증가 시 22.513명의 취업, 4.163명의 고용이 유발되며, 2021년 기준 취업유발계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고용유발계수는 다소 감소함. 전반적으로 세 산업 모두 고용 유발 효과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소분류 기준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추정치를 보면(표 10), 2021년 기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은 정곡 및 제분(28.070), 음식점 및 주점(17.619), 떡·과자·면류(13.367) 순이며, 고용유발계수는 음식점 및 주점(8.825), 떡·과자·면류(7.286), 수산가공품(7.099) 순으로 나타남. 2022년에도 순위는 동일했으나 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함
 - 이들 산업은 대기업 중심 자동화보다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중소기업 중심 산업으로, 자동화 수준이 낮고 서비스·소량다품종 생산 특성이 강해 고용 및 취업 유발 효과가 높은 구조를 갖고 있음. 특히 음식점 및 주점업은 가족노동 등 비정형 고용이 많아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2021년과 2022년 모두 주류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취업·고용유발계수가 감소함. 2021년에는 정곡 및 제분(-3.140), 음식점 및 주점(-1.535)이 가

장 많이 줄었고, 2022년에도 정곡 및 제분(-1.957), 음식점 및 주점(-1.700)이 큰 폭으로 감소함. 고용유발계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2022년에는 음식점 및 주점(-0.582), 조미료 및 유지(-0.663), 떡·과자·면류(-0.638) 순으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

<표 10> 소분류 기준 식품제조업과 외식업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

단위: 명/10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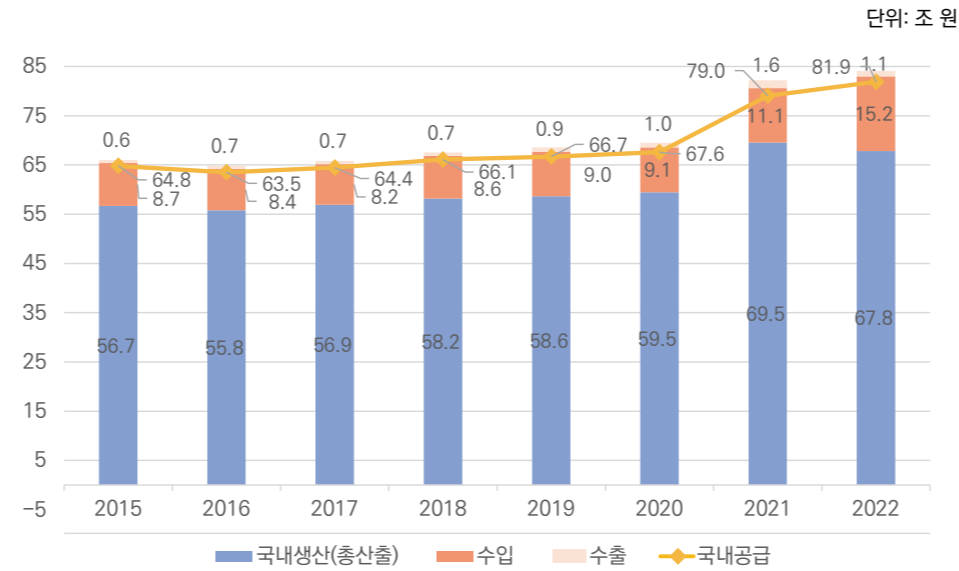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육류 및 낙농품	9.824	5.587	8.873	5.448
수산가공품	10.353	7.099	9.656	6.546
정곡 및 제분	28.070	3.473	26.113	3.448
제당 및 전분	4.479	3.174	3.837	2.609
떡, 과자 및 면류	13.367	7.286	12.390	6.647
조미료 및 유지	9.266	4.933	8.072	4.270
기타 식품	12.611	6.471	12.059	5.914
주류	5.398	3.758	4.685	3.194
비알콜음료 및 얼음	8.504	5.801	7.928	5.246
음식점 및 주점	17.619	8.825	15.919	7.973

2021-2022 농식품산업 투입산출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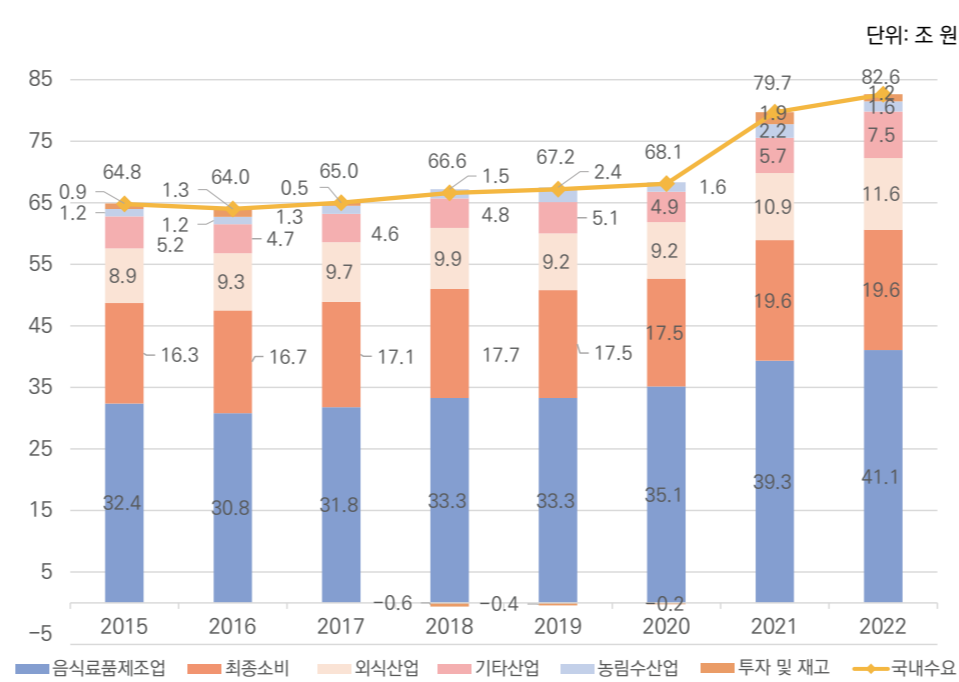
농림수산업 공급과 수요

- 2021년 농림수산업의 국내 공급은 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4조 원 증가했고, 2022년에는 81.9조 원으로 소폭 상승함. 2021년 증가는 국내 생산 증가에 기인했으나, 2022년에는 국내 생산이 오히려 감소함. 수입은 2021년 11.1조 원, 2022년 15.2조 원으로 증가하여 국내 공급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줌
- 농림수산업의 국내 수요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79.7조 원, 2022년 82.6조 원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식품제조업 수요는 2020년 35.1조 원에서 2021년 39.3조 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2년에도 1.8조 원이 증가함.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식 수요 증가, 온라인 유통 확대, 프리미엄 식품 소비 확산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됨. 반면, 농림수산업 자체 수요는 2021년 소폭 증가했다가 2022년 다시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함.
- 최종소비는 2021년에 19.6조 원으로 2조 원 증가했고, 2022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함. 이는 내식 확대, 정부 정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 매출액 확대 등 복합 요인의 결과로 평가됨
- 외식업에 투입되는 농림수산물 공급액은 2018년 9.9조 원에서 2019~2020년 9.2조 원으로 정체되었으나, 2021년 10.9조 원, 2022년 11.6조 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임

<그림 4> 농림수산업의 산출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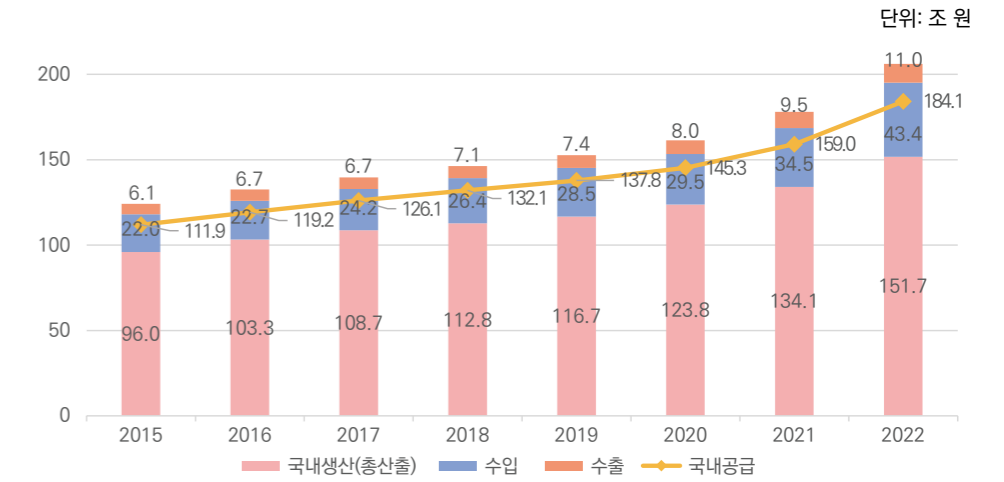
<그림 5> 농림수산업의 투입구조



식품제조업 공급과 수요

- 2021년 식품제조업의 국내 공급은 159.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 원 증가했고, 2022년에는 184.1조 원이 더 늘어남. 이 같은 증가는 HMR 수요 확대, 온라인 유통 확대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공급 구성 중 국내 생산은 2021년 134.2조 원, 2022년 151.7조 원으로 증가했고, 수입도 2020년 29.5조 원에서 2022년 43.4조 원까지 늘어남. 수출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처음으로 11.0조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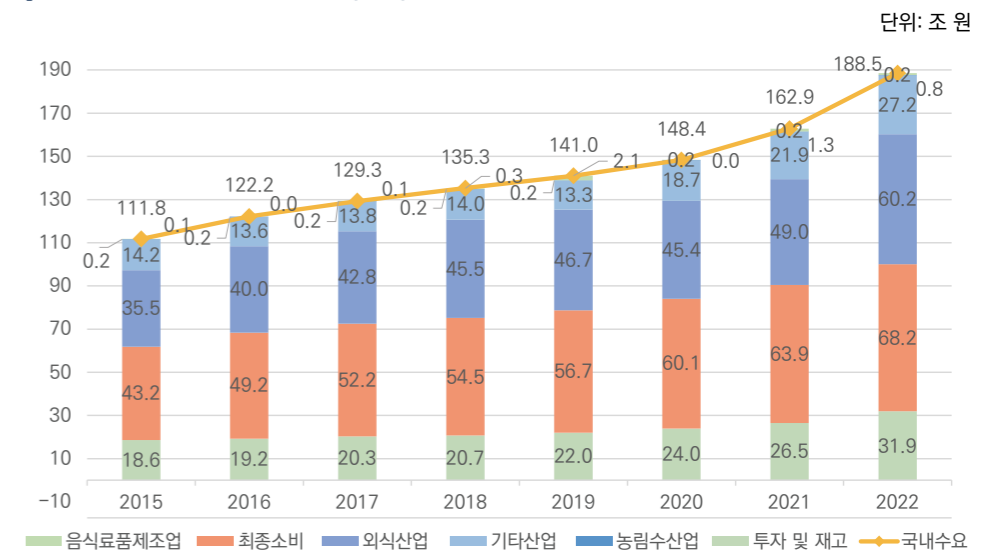
<그림 6> 식품제조업의 산출구조



- 국내 수요는 2018년 135.3조 원에서 2022년 188.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간편식 선호와 식생활 외부화에 따른 가공식품 수요 증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HMR 수요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수요 증가를 부문별로 보면, 2021년에는 외식업(4.6조 원), 최종소비(3.8조 원), 농림수산업(3.2조 원), 식품제조업(2.6조 원) 순이었으며, 2022년에는 외식업(10조 원)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기타산업(5.3조 원), 식품제조업(5.4조 원), 최종소비(4.3조 원)가 뒤를 이음

<그림 7> 식품제조업의 투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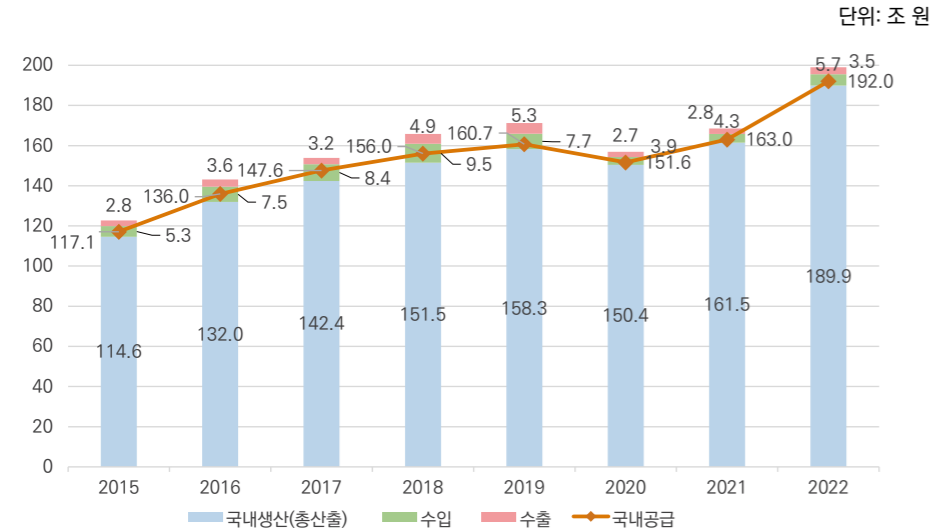
외식업 공급과 수요

- 2021년 외식업 국내 공급은 163.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4조 원 증가했으며, 팬데믹 이전 증가세가 2020년에 주춤했다가 다시 반등함. 이는 국내 생산 증가(11.1조 원 증가)와 소폭의 수입 증가에 기인함. 2022년에는 국내 공급이 192.0조 원으로 29조 원 증가했으며, 특히 국내 생산이 28.4조 원 늘어 가장 크게 기여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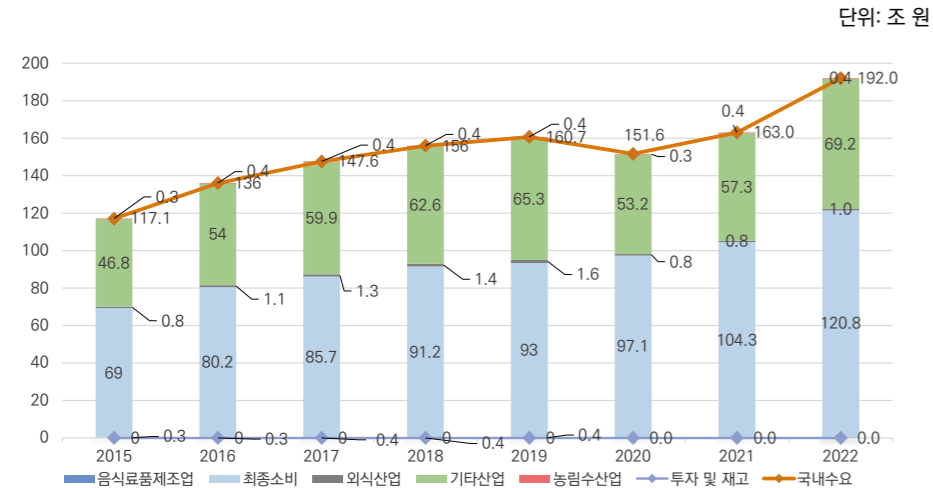
알 수 있음.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2021년), 방역 해제와 일상회복(2022년)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수요 측면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남. 2020년 외식업 최종소비는 97.1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기타산업 중간수요는 12.1조 원 감소하면서 전체 수요 증가폭을 상쇄함. 이는 코로나19로 기업 급식, 화식, 관광 관련 외식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며, 반면 배달음식 증가로 최종소비는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 2021년과 2022년에는 최종소비와 기타산업 중간수요 모두 증가함. 최종소비는 2021년 104.3조 원, 2022년 120.8조 원으로, 기타산업 중간수요는 각각 57.3조 원, 69.2조 원으로 증가함. 이는 방역 완화 및 일상 회복, 배달 인프라 정착, 소비심리 회복 및 보복소비, 관광·급식 등 연계 산업 회복 등 복합적 요인의 결과로 풀이됨. 요약하면, 외식업의 공급 및 수요 증가는 코로나 이후의 소비 방식 변화와 사회적 활동 정상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

◀ <그림 8> 외식업의 산출구조



◀ <그림 9> 외식업의 투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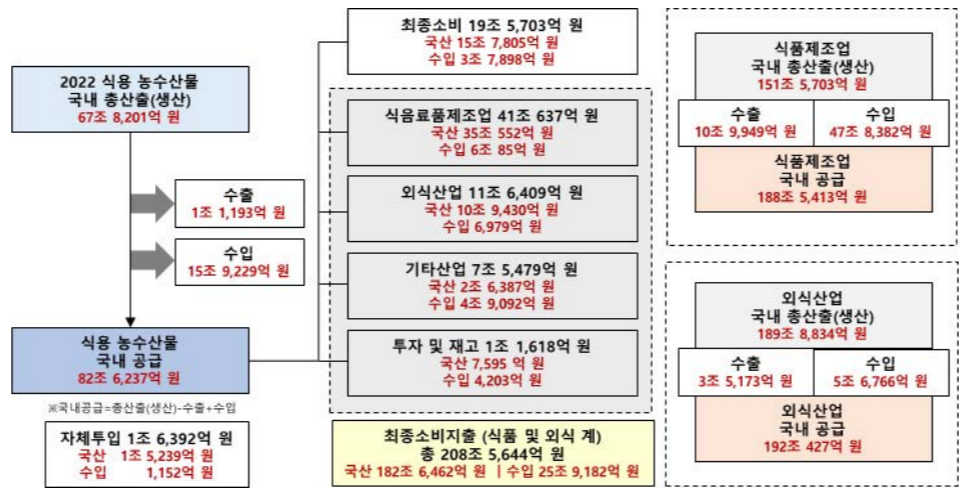


국내산 농림수산물 공급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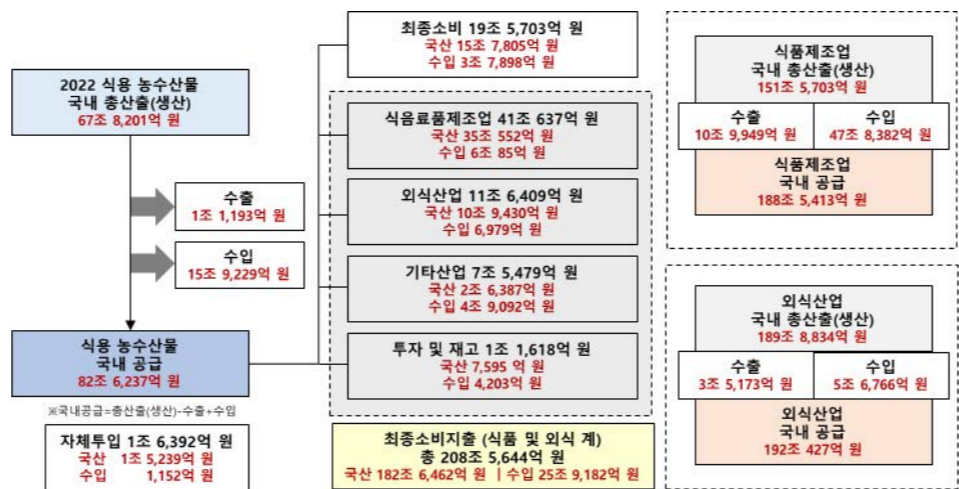
도표에 의한 공급 흐름 파악

- 2021년과 2022년은 코로나19의 완화와 일상 회복이 본격화되며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외식업 전반에서 공급과 수요가 크게 확대된 시기라 할 수 있음. 특히 2021년은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전환점이며, 2022년은 포스트코로나로 접어들며 산업 전반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회복된 해로 볼 수 있음

◀ <그림 10a> 2021년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및 외식업 공급 흐름



◀ <그림 10b> 2022년 농림수산업, 음식료품제조업 및 외식업 공급 흐름



- 2021년 농림수산업의 국내 공급은 약 79.7조 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0조 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 국내 총산출의 확대에 기인함. 공급된 농림수산물 중 39.3조 원은 음식료품제조업에, 10.9조 원은 외식업에 투입되었고, 19.6조 원은 최종소비로 사용됨. 음식료품제조업은 국산 농림수산물과 수입품을

합쳐 총 162.9조 원 규모의 식품을 공급했으며, 이 중 63.9조 원은 최종소비, 97.7조 원은 중간수요로 분배됨. 외식업 역시 생산과 수입을 통해 총 163.0조 원을 공급했으며, 이 중 104.3조 원이 최종소비로 사용됨

- 2021년의 수요 회복은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위드코로나 도입에 따른 소비 정상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됨. 특히 외식업은 코로나19 초기 급감했던 수요가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다시 확대되었으며, 기업 급식과 관광·숙박 연계 수요도 점차 회복됨. 동시에 가정 내 식사 비중이 늘어나면서 HMR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온라인 유통 확산도 공급 확대를 뒷받침함
- 2022년에는 이러한 회복세가 더욱 가속화됨. 농림수산업의 총산출은 다소 줄었지만, 수입 확대에 힘입어 총공급은 82.6조 원으로 증가함.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국내생산은 151.7조 원으로 전년보다 17.6조 원 증가했으며, 수입도 47.8조 원으로 늘어나 총공급은 188.5조 원에 달함. 최종소비는 68.2조 원, 중간수요는 119.5조 원으로 모두 확대됨. 외식업은 더욱 큰 폭의 성장을 보였는데, 국내 생산이 189.9조 원으로 급증하면서 총공급은 192.0조 원까지 확대되었고, 이 중 120.8조 원이 최종소비로, 71.2조 원이 중간수요로 쓰임
- 2022년의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 해제와 함께,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본격적으로 분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외식은 방문 소비와 배달 소비가 병행 확대되었고, 기업 급식·단체 식사 등 기타 산업과의 연계도 회복됨. 동시에 가공식품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료품제조업의 생산과 수입 모두 크게 확대됨
- 결과적으로 2021년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한 회복기였으며, 2022년은 일상 회복에 따라 식품산업 전반의 공급·수요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외식업의 공급과 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이며, 음식료품제조업 역시 내식 트렌드와 가공식품 소비 증가로 성장을 이어감. 농림수산업은 총산출이 다소 정체되었지만, 수입 확대에 의해 공급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고, 두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주요 투입재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함

국내산 농림수산물 공급 흐름

- 2021년과 2022년의 농림수산물 공급 및 수요 흐름은 코로나19 이후 소비 변화와 산업 구조 적응, 일상 회복의 영향을 반영하며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임
- 2021년에는 농림수산물 총산출이 전년 대비 9.3조 원 증가한 68.7조 원을 기록했으며, 식품산업 투입(33.6조 원)과 가계소비(24.1조 원) 모두 증가함. 특히 외식업 투입은 21.5조 원으로 큰 폭 상승함. 반면 2022년에는 총산출이 67.8조 원으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식품산업 투입은 36.9조 원으로 계속 증가했으나, 가계소비는 2.4조 원 감소한 21.7조 원으로 줄어들음

▶ <표 11> 국내산 농림수산품의 공급 흐름(2010-2022)(단위: 10억 원, %)

연도	식품산업투입			가계소비 (D)	수출, 재고, 기타 (E)	총산출 (F=C+D+E)
	음식료품제조업 (A)	외식업 (B)	합계 (C=A+B)			
2010	9,428	11,452	20,881	21,027	6,924	48,832
	(19.3)	(23.5)	(42.8)	(43.1)	(14.2)	(100.0)
2011	10,164	11,803	21,968	22,357	6,427	50,752
	(20.0)	(23.3)	(43.3)	(44.1)	(12.7)	(100.0)
2012	10,965	12,603	23,568	23,317	5,391	52,276
	(21.0)	(24.1)	(45.1)	(44.6)	(10.3)	(100.0)
2013	10,760	11,980	22,740	24,437	5,152	52,329
	(20.6)	(22.9)	(43.5)	(46.7)	(9.8)	(100.0)
2014	11,143	12,170	23,313	24,677	4,704	52,695
	(21.1)	(23.1)	(44.2)	(46.8)	(8.9)	(100.0)
2015	11,051	17,844	28,895	20,586	7,211	56,692
	(19.5)	(31.5)	(51.0)	(36.3)	(12.7)	(100.0)
2016	10,681	17,862	28,544	20,221	7,012	55,776
	(19.2)	(32.0)	(51.2)	(36.3)	(12.6)	(100.0)
2017	10,993	18,936	29,930	20,656	6,330	56,915
	(19.3)	(33.3)	(52.6)	(36.3)	(11.1)	(100.0)
2018	10,904	19,739	30,643	21,876	5,652	58,171
	(18.7)	(33.9)	(52.7)	(37.6)	(9.7)	(100.0)
2019	11,499	18,278	29,777	22,023	6,843	58,643
	(19.6)	(31.2)	(50.8)	(37.5)	(11.7)	(100.0)
2020	11,098	18,710	29,808	22,482	7,167	59,458
	(18.7)	(31.5)	(50.1)	(37.8)	(12.1)	(100.0)
2021	12,082	21,499	33,581	24,098	11,059	68,738
	17.6%	31.3%	48.9%	35.1%	16.1%	100.0%
2022	12,556	24,315	36,871	21,738	9,211	67,820
	18.5%	35.9%	54.4%	32.1%	13.6%	100.0%

- 비중 측면에서는 2022년 식품산업 투입 비중이 54.4%로 반등했으며, 특히 외식업 비중이 35.9%까지 상승해 외식 부문의 회복과 중심성 강화를 보임. 음식료품제조업 투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지만, 외식업만큼 두드러진 성장은 아니었음. 반면 가계소비 비중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농림수산물 소비가 직접 구매보다는 가공·외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 종합적으로, 식품산업은 구조적 성장을 이어가며 외식업이 핵심 소비 채널로 다시 자리잡았고, 가계소비는 물가 상승 등 외부 요인과 함께 상대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임. 총산출도 2021년 급증 이후 2022년에는 정체 또는 일부 감소해, 외식·가공 수요 증가가 농림수산업 전반의 공급 확대를 완전히 견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됨

국내산 농림수산물 세부품목별 공급 흐름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산 농림수산품의 공급 흐름은 가공·외식 중심 소비 확산과 가계 직접 소비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를 보임
-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식품산업 투입이 3.8조 원, 가계소비는 2.4조 원 증가하며 전반적인 수요 확대가 나타남. 특히 채소, 축우·양돈 등 육류, 가금류의 식품산업 투입이 크게 늘었고, 가계소비에서도 비슷한 품목들이 증가함. 반면 수산어획, 정곡 등 일부 품목은 감소함. 이 시기는 팬데믹 회복기에 접어들며 가공식품 및 외식산업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던 시점으로, 간편식·비대면 소비 확산과 관련된 구조적 변화가 반영됨
- 2021년에서 2022년에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남. 식품산업 투입은 3.3조 원 증가했으나, 가계소비는 3.2조 원 감소하며 뚜렷한 이중 구조가 형성됨. 특히 식품산업 투입은 양돈, 가금육, 수산양식, 정곡 등에서 증가한 반면, 가계소비는 축우, 양돈, 정곡, 채소 등 핵심 식재료 대부분에서 큰 폭 감소가 나타남.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식재료를 구매하기보다는 외식이나 가공식품을 통한 간접 소비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함
- 전반적으로 보면, 식품산업을 통한 간접 소비가 확대되는 반면, 가계의 1차 식재료 직접 소비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특히 2022년에는 이러한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남. 다만, 수산양식 품목은 식품산업과 가계소비 양쪽에서 모두 증가해 수산물 소비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표 12> 국내산 농림수산품의 공급 흐름 변화(상세)(단위: 10억 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식품산업 투입	가계소비	식품산업 투입	가계소비	식품산업 투입	가계소비
벼	0	-	4	-	0	-
정곡*	4136	2653	3923	2671	4240	1916
맥류 및 잡곡	250	6	185	6	271	4
콩류	253	292	485	338	567	330
감자류	535	640	530	639	507	578
채소	4962	6347	6341	7015	6236	6571
과실	1676	2578	2109	2963	2304	2883
약용작물	495	335	448	329	500	309
기타식용작물	287	284	458	388	716	212
낙농	2394	-	2401	-	2288	-
축우	-	-	-	-	-	-
도축육(축우)*	2962	2374	3477	2737	3792	1678
양돈	-	-	-	-	-	-
도축육(양돈)*	3261	2614	3750	2952	4892	2164
가금	996	883	1574	1194	1772	1334
가금육*	1666	316	2119	307	2660	200
기타축산	75	510	134	562	106	622
도축육(기타축산)*	0	0	0	0	0	0
식용 임산물	404	283	451	314	450	321
수산어획	3365	1675	3106	1634	3123	1591
수산양식	2094	694	2087	861	2447	1025
합계	29808	22482	33581	24908	36871	21738

저자 정보

- 진현정 중앙대학교 교수, hyunjin@cau.ac.kr